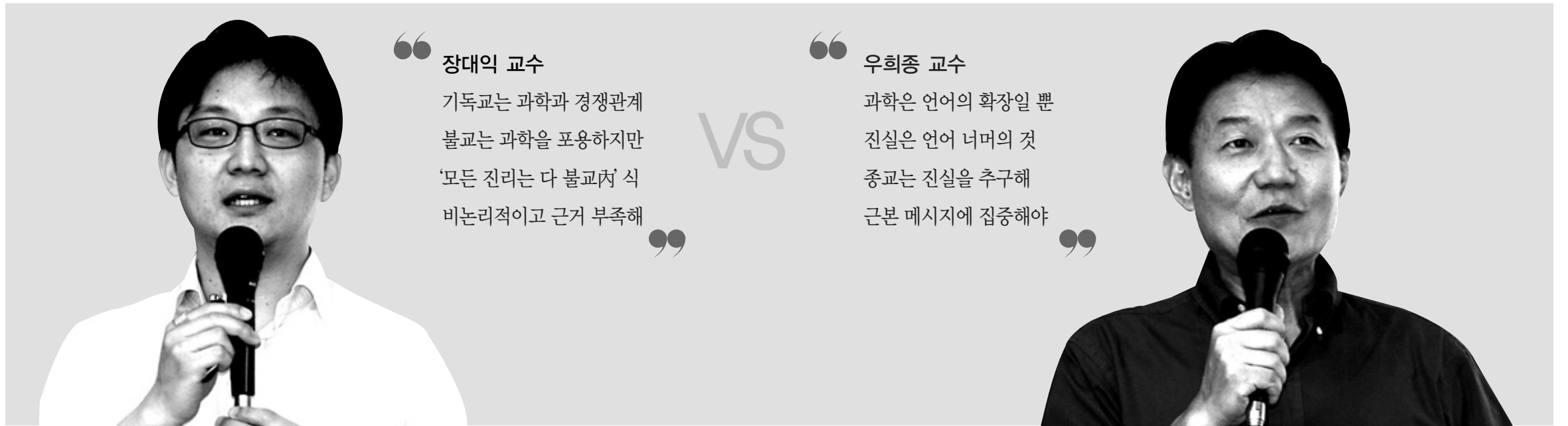


# 불교(진실)와 과학(사실), 둘 다 언어의 감옥 속에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불교와 과학의 대화'를 주제로 8월 4일~9월 1일 특강을 진행 중이다. 첫 번째 강의를 8월 4일 봉은사 봉은선원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불교와 과학의 관계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찰해온 자연과학자 서울대 우희종 교수와 진화 생물학자로 종교에 비판적인 서울대 장대의 교수가 강연했다.

9·11테러 이후 종교는 중요한 이슈와 논쟁의 대상이 됐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종교논쟁은 <종교전쟁: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사이언스북 펴)가 출간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봉은사와 사이언스북은 불교와 과학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5회 연속 강연을 개최한다.

정리=천진영 기자



**“ 장대의 교수**  
기독교는 과학과 경쟁관계  
불교는 과학을 포용하지만  
‘모든 진리는 다 불교내’ 식  
비논리적이고 근거 부족해

**“ 우희종 교수**  
과학은 언어의 확장일 뿐  
진실은 언어 너머의 것  
종교는 진실을 추구해  
근본 메시지에 집중해야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장대의 교수

왜 <종교 전쟁>인가?

종교 분야는 성역처럼 도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희종 교수, 장대의 교수는 종교를 제대로 해부해보자 <종교전쟁>을 펴냈습니다. 우선, 책이 나오고 나서 제목에 대해 “왜 하필 전쟁인가?”는 비평이 많았습니다. 제목에 나온 전쟁의 의미는 종교에 대한 도전과 연구가 ‘지적인 전쟁’이라는 뜻이었음을 밝힙니다.

오늘은 종교라는 큰 틀 안에서 과학과 종교, 불교와 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황우석 박사를 옹호한 불교는 블랙홀

“200만 불자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 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 세포는 온누리에 펼쳐질 생명과 자비다.”

2008년 7월 조계사에서 황우석 박사를 옹호하는 불자들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 황 박사의 연구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황 박사의 연구를 칭송하던 각계각층이 지지를 철회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불교단체들만 황 박사를 끝까지 지지 했습니다. 저는 불교와 줄기세포 연구가 무슨 인연이 있기에 불교에서만 유독 황 박사를 감싸는지 궁금했습니다.

“황우석 사태”에 불교계의 반응에 대해 도법 스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불교적 세계관과 생명 윤리관에 과연 줄기 세포 연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황우석 박사가 불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래도 되는 것인가? 불교인들은 불교가 ‘과학적 종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황우석 사태에 대한 한

국 불교계의 반응은 전혀 불교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황우석 감싸기는 한국에서 급성장한 기독교 세력에 대한 불교계의 피해의식이나 위기의식의 표출이다.” (한겨레 2006. 2. 1.)

저는 도법 스님이 황우석 사태를 통찰력 있게 비평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합리적인 사고를 빨아들여 자기 확장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불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황우석 사태에서 불자들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결국 불교도 “정신적 블랙홀”임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언어에 매달리는 표층 종교 때문에 종교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들이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오강남, 성혜영 지음, p.49)

종교에 대해 본격적인 무신론적 논란이 일자 한편에서는 “표층종교만 문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표층이고 심층입니까? 사실 저는 이것을 구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은사 땅밭기 사건, MB의 무릎기도 사건 등 비사실적인 사건도 있지만 교회와 절에서 동시에 행해지는 ‘수능 100일 기도’ 등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모든 의식을 표층 종교라고 말한다면 심층 종교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과학과 불교의 담론이 불편한 이유

과학자로서 불교와 과학의 담론이 편하지 않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불교가 현대 과학적 사유를 선취했다고 주장하는 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의 대표적인 양자역학 같은 이론은 불교적 세계관과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과학) VS 진실(종교)

그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하게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서 발전한 현대 과학을 불교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불교 교리 내에 과학적 사유가 섞인 형태로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교 안에 생태학적 이론이 다 포함돼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불교 생태학’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반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교가 현대 과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에 관해서 만큼은 불교가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 과학은 사실이고 종교는 진실이다?

“과학은 사실이고 종교는 진실이다” 우희종 교수의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 169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 교수님을 매우 존경하지만 이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사실(facts)입니다. 사실을 추구 합니다. 하지만 사실도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합의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종교도 사회적 합의와 편입을 통해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과 진실은 많은 범위를 함께 합니다. 우 교수님이 진실을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한 것이라고 보아도 ‘가치와 의미’조차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학은 사실이고 종교는 진실이다”라는 말은 아주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옳은 의견은 아닙니다.

##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과학과 종교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기독교와 과학은 자주 거론되는데 불교와 과학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과학 시대입니다. 과학에도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왜 존재 하는가 의문을 던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문은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도 이와 같습니다. 종교도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삶의 자세를 이야기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왜 새겨졌습니까?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이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학은 ‘일미진중합시방’

과학적 지식은 프랙탈(fractal) 구조를 지닙니다. 프랙탈(fractal: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 되는 것)구조란 불자들에게는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일미진중합시방(一微塵中舍十方)’이라는 <화엄경> 구절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티끌 안에 전 우주가 다 들어 있고 우주도 한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 범위가 작고 크면 그 속성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2500년 전의 지식세계를 살펴봅시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식의 사유와 과학의 발전으로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지식의 양은 너무 다르지만 근본적인 우리 삶의 희로애락은 변하지 않았습니.

지금의 21세기 과학에 대한 근간은 이미 100년 전 뉴턴의 양자역학 즉, 환원주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과학자로서 근대과학의 패러다임인 환원주의가 물

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환원주의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다주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1+1=2’ 라는 환원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총체적이고 관계론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과 진실의 차이...언어의 감옥

우리는 언어의 감옥, 개념의 감옥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은 그 감옥의 범위를 끊임없이 넓혀줍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사유와 언어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진실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항상 우리가 수용하며 공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며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진실입니다. 수백 년 뒤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반면, 사실(facts)은 특정시대에 다수가 공유하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 지구의 모습은 평평했습니다. 수평선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했다던 화형 당했을 것입니다. 또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가 태양계를 돈다는 지동설과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에 이의를 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실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된 내용으로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종교와 과학은 상충된 것 아냐

종교와 과학이 상반된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학의 발전은 종교와 싸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그 이전의 과학과 싸워서 이길 때 발전 합니다.

진실(종교) VS 사실(과학)

그래서 과학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앞서 장대의 교수가 종교가 사회 현황이나 심지어 과학적 문제에까지 개입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답을 하자면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만 몰두한 나머지 사회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특히,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런 실수들을 막고자 종교가 개입해서 사회를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에서 오강남 교수가 말한 표층 종교는 아마 ‘제도화된 종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층 종교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처가 전하고자하는 메시지, 예수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과학의 발전이 다르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메시지’에 집중한다면 불교와 기독교, 종교와 과학은 충분히 논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불교와 과학은 둘이 아닌 하나

불교는 과학을 달음 가리키는 손가락에 해당 된다고 보지만 동시에 손가락과 달이 둘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와 과학의 논의는 기독교와 과학과의 논의보다 훨씬 풍성하고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특히 불교는 인간뿐만 아니라 유정·무정의 세계를 포괄해 말하므로 자연과학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아름다운 절집 숲 24곳

###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인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

휴가길 필독서!

## 중생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주시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만남!

###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33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나루셨는가? 항상 중생들 곁에 계시면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유래와 영험담!



전통과 현대적 기법이 조화를 이루어 그려 모신 33관세음보살도! 중생들의 어려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성스럽고 친근한 모습!

방경일 글·남종진 그림 | 국판 변형 | 컬러 | 256쪽 | 값 13,000원

